

제40절의 숨겨진 역사 - 제3편

일요일 법령과 예언적 여정: 애국자법에서 최종 시험까지

Jeff Pippenger

2024-09-22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칙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의로움에서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개신교가 간극을 넘어 로마 교권의 손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심연을 넘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을 때,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개신교적이고 공화국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저버리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전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이르렀고 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표징이었듯이, 이 배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다다랐고, 우리 민족의 최악의 분량이 가득 찼으며, 금홍의 천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떠나가려 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표징이 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자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그 고난과 곤경의 장면들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신실하나 박해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듯이,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바다의 무덤에서, 산속 동굴에서, 수도원의 납골당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들도 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주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온 하늘이 분주하다. 온 땅의 재판장이신 분께서 속히 일어나셔서 모욕당한 그분의 권위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경외하며, 짐승이나 그의 우상의 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가 새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이 반대와 진노의 광풍에 맞서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다. 앞에 닥칠 일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환난의 날에 주께서 신실한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가오는 폭풍을 태연히 기다리며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한가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사소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때이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사탄은 주의 백성이 자비도 공의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일을 꾸미고 있다. 일요일 운동은 지금 어둠 속에서 그 길을 열어 가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쟁점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합류한 많은 이들조차 암류가 어디로 향하는지 스스로 보지 못한다. 그 표방은 온건하고 겉으로 보기에 기독교적이지만, 그것이 말하게 될 때에는 용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닥쳐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올바른 빛 가운데 제시함으로써 편견을 해소하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진정한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조치들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는 말한다.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요,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하겠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증언, 5권, 451, 452쪽.

"일요일 운동"이 말할 때, 그것은 "용의 영"을 드러낼 것이다. 네 개의 단락은 일요일 법령 때 미국이 "의와 완전히 단절할 것"임을 지적한다. 일요일 법령 때 "사탄의 놀라운 활동이 일어날 때가 이르렀다." 일요일 법령 때 삼중 연합이 성취된다. 일요일 법령 때 미국은 "프로테스탄트 공화정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저버리고", 또한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의 전파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그 일요일 법령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 나라의 불의의 분량이 가득 찼으며, 자비의 천사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채로 날아 떠나려 함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표징"이다. 그 표징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지목하시며 주신 예수님의 경고로 예표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 다섯째 인 아래 순교자들이 올려 드린,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는 기도가 성취된다. 또한 그 이정표에서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품성을 드러낸다.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미국은 "자국 헌법의 모든 원칙을 저버린다." 이 과정은 2001년 애국자법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부터 일요일 법령까지의 기간은 헌법을 점진적으로 저버리는 과정이다. 그 점진적인 과정은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예언의 선에 해당한다. 짐승의 형상의 선은 다소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복잡함은 이해할 가치가 있다. 짐승의 형상의 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두 개의 선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땅의 짐승의 경우, 두 개의 선은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뿔이다. 그 두 뿔은 정교 연합으로 결합하며, 그리하여 짐승의 우상의 형성을 이룬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 형성의 선은 하나의 선 안에 두 개의 선을 포함한다.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뿔이 역사 속에서 서로 병행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며, 또한 각각의 선도 고유한 예언적 증언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평행한 주제를 가진 하나의 예언적 선은, 헌법과 연관된 말함을 대표하는 정치적 행위들의 이정표만을 표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공화주의의 뿔과 개신교의 뿔이라는 두 줄기는, 공화주의의 뿔 안에는 노예제 찬성 민주당과 노예제 반대 공화당 사이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는 예언적 사실로 인해, 또 개신교의 뿔 안에서는 그 역사 속에서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구분해 내는 지속적인 시험 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리들에 굳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땅의 짐승의 두 뿔이 나타내는 선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느냐 사탄의 품성을 형성하느냐가 서로 병행하여 묘사되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 중 하나를 이루는 것과 같다. 여기서 '짐승'은 창조주와 대비되는 피조물을 뜻한다. 이러한 속성들의 형성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오직 두 부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형성은 또한 교황권과 유엔의 동맹을 통해 외적으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시험의 때는 2001년에 시작되어 미국의 일요일법에 이르면 끝난다. 그 기간 동안 땅의 짐승의 두 뿔에 관한 예언적 역사는 각 뿔의 안팎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논쟁을 보여 주며, 또한 두 뿔 사이의 투쟁도 보여 준다.

미국의 일요일법은 예수께서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지목하신 '도망하라는 경고'를 의미한다. 미국의 일요일법은 2001년에 시작된 시기의 끝이다. 애국법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가올 멸망을 피해 도망치라는 표징으로 지목하셨다.

애국법은 1888년의 예언적 빛과 블레어 법안을 포함한다. 따라서 애국법은 또한 예언적으로 일요일 법령의 예표를 포함하므로, 2001년부터의 시기는 1888년-블레어 법안, 2001년-애국법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하고, 일요일 법령으로 끝난다.

2001년에 도시를 떠나라는 경고는 주일 법령 때 바벨론에서 피하라는 경고를 예표한다. 주일 법령 때 미국에 임하는 심판은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예표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표식은 1888년의 블레어 법안이 나타내는 진리들과 1888년이 의미하는 모든 것 안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며, 이것이 2001년에 반복된다.

1888년으로 예표된 2001년은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나타난 피하라는 징조를 의미할 뿐 아니라, 서기 66년과 케스티우스의 포위전으로도 예표되었다. 서기 70년의 티투스의 포위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나타낸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321년과 콘스탄틴의 첫 번째 일요일 법령으로 예표되며, 538년은 지구상의 마지막 국가가 짐승의 표에 굴복하는 때를 가리킨다.

2001년은 1888년, 케스티우스, 그리고 서기 66년이다. 일요일 법은 티투스와 서기 70년과 321년이다. 2001년은 또한 예수의 세레이며, 1840년 8월 11일 요한계시록 10장에서의 그의 강림이기도 하다. 이 모든 상징은 헌법의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미국의 예언적 역사는 재림운동의 역사와 병행한다. 1798년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1798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와 관련된 다니엘서의 예언 일부의 봉인이 풀린 마지막 때였다. 바로 그 1798년에 재림운동의 예언적 시작이 표시되었고, 1798년에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되었다.

1798년에 앞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노선과 연관되어, 따라서 미국의 말함과 미국 헌법과도 연관된 세 가지 예언적 이정표가 있었다. 그 세 가지 이정표는 1776년에 선포된 독립선언서, 1789년의 미국 헌법, 그리고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이었다.

그 세 가지 이정표는 헌법에 관한 예언의 선을 다루며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시작을 표시한다. 일요일 법령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 통치의 끝이므로, 시작에 앞서 세 가지 이정표가 있었던 것처럼 끝에 앞서서도 예언적으로 반드시 세 가지 이정표가 있어야 한다.

2001년, 탑들이 무너질 때, 애국법은 1888년의 블레어 법안과 미니애폴리스 총회에서 재림주의 지도부의 명백한 반역에 의해 예표된다. 천사가 화이트 자매에게 모세를 대적한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으로 예표되었다고 말해 준 그 반역은 서기 27년의 그리스도의 세례, 1840년 8월 11일의 이슬람의 억제, 1776년의 독립선언으로도 예표되며, 또한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는 표징으로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케스티우스와 서기 66년으로 대표됨)으로도 예표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언의 선이 미국 헌법의 선임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모든 예언의 선들은 헌법의 선이 대표하는 예언적 주제를 뒷받침하고 확고히 한다. 그러나 가장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보이는 선은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선이다. 짐승의 형상은 교황권의 짐승의 형상으로, 그것은 여자가 짐승 위에 군림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교회가 그 관계를 주도하는 정교 결합을 의미한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도한 개신교가 정부를 그렇게까지 장악하여, 정부가 종교적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요일 법령까지도 제정·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짐승의 형상이 형성되는 과정이 완결되면, 토머스 제퍼슨이 '정교분리'라고 명명한 최우선 원칙에 따라 제정된 헌법은 뒤집히게 된다. 개신교의 뿔이 공화주의의 뿔에게 종교적 명령을 집행하도록 지시할 권세를 갖게 될 때, 헌법의 바로 그 핵심이 산산이 찢겨 나가며, 이로써 헌법의 맥락과 짐승의 형상의 맥락 사이의 예언적 관계가 드러난다.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기간은 2001년 애국법과 함께 시작되었고,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일요일 법령 때 끝난다. 그 기간 동안 늦은 비가 뿌려지는데, 늦은 비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능한 천사가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땅을 밝힐 때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화이트 자매에 따르면, 이는 주님의 손길 한 번에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질 때 일어날 것이다.

"늦은 비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내릴 것이다. 능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1년 4월 21일.

늦은 비가 뿌려지는 때는 재림교회 마지막 세대의 알곡과 가라지가 체질되고 정결케 되는 시기를 가리킨다. 그 체질과 정결케 됨은 일요일 법령에 이르러 끝나며, 일요일 법령의 위기가 도래할 때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은 인침을 받고, 이후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간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진다.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늦은 비가 흩뿌려지고 있을 것이며, 전 세계에서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동안에는 늦은 비가 한량 없이 부어질 것이다.

2001년에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840년 8월 11일의 개신교도들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의 고대 이스라엘로 예표된 바와 같다.

시험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 죄를 사하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됨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선택된 기별, 1권, 362쪽.

한때 언약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시험 과정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빛이 그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그의 메시지는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타나 있으며, 그 세 구절은 화이트 자매의 말에 따르면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성취되었다.

그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묘사한 대로 시험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 시험은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책을 받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시험 기간 동안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작은 책을 받아 먹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있다.

“많은 이들이 크게 이른비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처럼 제공하신 모든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 결핍이 늦은비로 보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가장 풍성한 은혜가 부여될 때 그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겠다고 한다. 그들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지식을 주심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하신 일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은 모든 더러움을 비워 성령의 내주를 위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 제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버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여주심을 준비했다. 지금 또한 같은 일이, 다만 더 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사람은 축복을 구하고, 주께서 자신과 관련된 일을 완전케 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일을 마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른비가 상징하는 은혜를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자신이 받은 빛에 따라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덕목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서 전진하지 않는다면, 늦은비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마음 위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6, 507.

2001년의 기별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 시대에 합당한 기별을 받고 있었지만, 그 기별을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한 준비된 경험으로 참으로 내면화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 기간에는 밀과 가라지가 여전히 함께 있으므로, 늦은 비는 ‘뿌림’으로 표상된다. 그래서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우리 주위의 마음들 위에 떨어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과 분리될 때, 늦은 비는 오순절 때 그랬던 것처럼 한량없이 부어지며, 이는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또한 이 비유들은 심판 후에는 더 이상의 은혜의 시기가 없음을 가르친다. 복음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고, 각 부류의 운명은 영원히 확정된다.”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123.

늦은 비가 뿌려지는 기간과 그 뒤에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기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두 기간으로도 묘사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의 기간은 2001년 9월 11일에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되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응답하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다른 양 떼에 대해서는 일요일 법령 때 심판이 이루어지며, 그 심판은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닫힐 때 끝난다.

늦은 비의 두 시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다른 양무리로 옮겨 가는 심판의 두 시기이기도 하듯,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두 시기이기도 하다.

그 두 예언적 기간 가운데 첫째 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미국 위에 심판이 임할 때, 공화주의 뿔과 개신교 뿔이 모두 심판받는 바로 그 동일한 역사가 전개된다.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려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은 유예의 잔을 가득 채우고, 국가적 파멸이 그 나라에 임하며, 그때 사탄이 나타나 그의 기이한 역사를 시작한다. 일요일 법령 때 14만 4천은 인침을 받고 기치로 높이 들려진다.

우리는 "천상의 영광과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되는 일이 어우러질 때 지상에서 살아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사탄은 부지런한 성경 연구자이다. 그는 자신의 때가 짧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모든 면에서 대항하여 방해하려 한다. 하늘의 영광과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되는 일이 뒤섞이는 때에, 땅 위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조금이라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악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온갖 종류의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을 행함으로 안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사탄이 이루어질 기적들을 흉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연단과 시험을 거친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기 31장 12-18절에 언급된 표징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남게 될 것이다." 증언, 9권, 16.

과거에 있었던 박해의 재현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된다. 그때 사탄이 그의 기이한 활동을 시작하며, 이미 "시험되고 연단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이는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 땅의 주 곁에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한때 사탄에게 주어졌던 덮는 구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보좌를 둘러싼 거룩한 존재들을 통해, 주께서는 땅의 거민들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신다. 그 금빛 기름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등불에 공급하셔서 그것들이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만일 이 거룩한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여되지 않았다면, 악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우리 영혼에 부어 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는 금 기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라' 하는 부름이 들려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자신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고, 그들의 삶은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질 것이다.

금으로 된 관들을 통해 금 기름이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느니라.'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지혜로운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과 에스겔 9장에서 인 맞은 자들이며, 그가 보내시는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주님을 욕되게 하는 미련한 자들과 대조된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그 날에는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될" 자들이다. 그 두 부류는 시험을 받아, 그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품성이 드러나는 지점까지 이끌려 갔다. 2001년 9월 11일 이후로 그때의 메시지는 늦은 비의 메시지로 되어 왔다.

늦은비의 메시지는 이사야 28장에 제시된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법론을 통해 식별된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법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 연구의 방법이므로, 그 방법론을 거절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이라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제시되는 그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론을 주신 분까지도 거절하는 것이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으로 이끄는 시험 과정에서 영감으로 계시된 원칙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영광과 과거 박해의 반복이 뒤섞인' 역사 속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경험 속에 거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반드시 그 빛을 분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길을 잃고 만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이슬과 단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 우리가 빛의 조각들을 거두어 모으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귀히 여길 때,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이사야 61:11 인용.]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 주석, 7권, 984.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때, 곧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그 기간에, 늦은 비는 오직 '우리 위에' '내리고 있는' '은혜의 이슬과 소낙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임해 왔다. 화이트 자매가 앞서 지적한 '큰 실수'는, 미련한 처녀들이 늦은 비가 한량없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때 가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자라 가는 이들만이 더 많은 빛을 받는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험의 때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박해가 되풀이되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 행하려면, 위기가 닥치기 전에 예언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제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교육을 완전하게 마쳤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의 이해를 위해 예언의 말씀을 열어 주셨고, 이어 제자들은 열흘 동안 그들의 연합을 완성했다. 그 후 오순절이 왔으며, 이는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일요일 법령의 시험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결심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풀무불 가운데서 걸을 때 그들의 신실함은 더욱 크게 드러났고, 그 시험 이전에 이미 마음에 굳게 정해 두었던 그 메시지는 풀무불에서의 기적을 목격한 방문해 온 모든 귀빈들에 의해 당시 알려진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생각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